



보도시점 2026. 7. 9.(목) 09:00 누리망·방송 2026. 7. 9.(목) 09:00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엔 경찰청장 회의서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강조”

- 미국·유엔 무대 누비며 ‘케이-치안 외교’. 유엔 평화활동국·유엔 개발계획 회담, 미연방수사국회담, 미주개발은행·중동·유럽 국가와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8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회 국제연합(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본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찰의 기여 확대'를 주제로 연설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며, 유엔 무대에서 한국 경찰의 기여를 알리는 한편, 날로 지능화·국제화하는 초국가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재외국민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본회의 참석 및 연설

이번 출장의 핵심은 8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회 유엔 경찰청장 회의 본회의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는 전 세계 경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유엔 평화활동과 초국가범죄 대응 등 국제적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끌고 본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찰의 기여 확대'를 주제로 연설했다.

연설에서 유 직무대행은 사이버범죄·마약·인신매매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에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 체계 강화와 한국 경찰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유엔 산하 기구 수장과의 총수 회담

대표단은 유엔 산하 주요 기구 수장들과도 잇따라 회담하며 한국 경찰의 유엔 평화 활동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6일에는 유엔 평화활동국(UNDPO) 장 피에르 라크루아 사무차장과 만나 한국 경찰관의 유엔 평화 활동 파견 재개와 연내 대한민국 경찰관의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 방안을 논의했다. 7일에는 유엔 개발계획(UNDP) 알렉산더 드 크루 총재와 회담을 하고,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 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 등을 협의했다.

주요국과의 치안 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은 6일 요르단·네덜란드 경찰청과 각각 치안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초국가범죄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동·유럽 지역으로 치안 협력 기반을 넓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국과 사이버수사와 국제범죄 공조, 치안 정책·기술 교류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재외국민 보호 및 현지 한인 경찰관 격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7일 외교안보국(DSS) 뉴욕지부 관계자를 만나 최근 공조 성과를 낸 유공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경호·안전지원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들은 한국계 이민자 출신으로 뉴욕·뉴저지 등지의 경찰과 연방기관에서 근무하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가고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 직무대행은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국 경찰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법집행기관 · 국제기구와의 협력

초국가 범죄 차단의 또 다른 축인 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도 본격화 한다. 대표단은 미연방수사국(FBI) 본부를 찾아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며, 사이버 수사와 국제범죄 공조 등 양 기관의 치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초국가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공조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미주개발은행(IDB)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찰청은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 치안 외교를 확대하여 재외국민 보호 강화와 케이-치안 시스템 전수 및 치안 장비 수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초국가범죄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유엔과 주요국 법집행기관, 그리고 현지에서 헌신하는 한인 경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 치안 협력을 한층 강화해 재외국민은 물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치안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장	김 종 길	(02-3150-2085)
		담당자	계장	김 석 준	(02-3150-2777)